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3. 27.(수) 08:00 배포 2024. 3. 26.(화)

인니,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대사와 방산수출 논의

- 3.25~3.26 양일 간 3개국 대사와 방산 및 산업·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5~26일 양일 간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위해 입국한 인니,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대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각 공관장들과 주재국의 정세, 방산시장 현황 및 동향, 방산 프로젝트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울러 방산과 연계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3.25일 인도네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재국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6년부터 시작된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같은 날 진행된 UAE 대사 면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가동으로 쌓여진 양국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키고, 23년 1월에 있었던 양국 정상 간 경제 외교를 통해 시작된 군함, 유도무기 등 방산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3.26일에는 사우디 대사와 면담을 갖고, 작년 12월 체결된 한국과 GCC간의 FTA를 통해 무기류 등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우호적 여건을 활용하여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수소 등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방위산업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고, 수출 최일선에 있는 주재국 대사들이 현지 정보를 적시에 정부와 공유하고, 기업의 현지 진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는 등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3.27일에 폴란드 및 카타르 대사와도 방산 관련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임채욱(044-203-4150)
		담당자	사무관	이순호(044-203-41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